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6.(수) 11:00 < 8.17.(목) 조간 > 배포 2023. 8. 16.(수)

디지털 예측부터 대응·복구까지 에너지시설 관리, 근본부터 혁신 모색

- 디지털 점검(모니터링)부터 취약지역·시설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예측·대응 강화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 16.(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시설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최근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과거 지침서(매뉴얼)나 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재난관리의 디지털 상향 조정(업그레이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부터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예측·대응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폭우나 폭염 등에 대응하여 시설·인명 피해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시설·설비 관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현 관리체계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배전 원격 감시·제어·계측시스템(SCADA) : 기존의 단순제어·계측 기능 외에 실시간 계통해석, 고장분석 등 복잡·다양화하는 계통운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

** 운영 원전 설비고장 통합 예측시스템 고도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설비 자동예측진단을 통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한 이상징후를 사전 예측 및 원인분석

산업부는 에너지시설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인 만큼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상향 조정(업그레이드)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호성 (044-203-5120)
		담당자	주무관	이상현 (044-203-51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